

대행 스님

물이 흘러 가는데 큰 돌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직접 당하지 않았고 "내가 살 만한데 뭘 그래? 그까짓 거 주인공이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공이란 자기 몸뚱이와 움죽거리는 거와 생명의 근본과 똑같이 한데 합쳐진 거를, 지금 육(肉) 안에 든 생명들도 다 같이 움죽거리는 거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아, 자기가 자기 무시하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하라죠, 뭐. 누굴 믿어요, 지금? 허공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길에 어떻게 놀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요다음에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럼 소임을 저절로, 개로 소임을,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개 소임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저절로입니다. 뭐, 누가 시켜서 '소임을 너 맡아라, 줘라' 이러고 뺏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자기의 모습 쓰고 나오는 대로 그 소임이 주어지니깐요. 아주 괴짜죠. 우습죠. 염소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염소의 그 소임을 다 해야죠. 그렇듯이 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죠. 자기 하는 소임은 다 있으니깐요. 인간으로 나온다면 인간의 소임을 다 해야 하고요. 인간들도 천차만별인데 그 소임 소임 따로따로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조금도 우연이 없고 이렇게 잘못 나가는 법도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인간의 차원도 바로 이 세상 차원이나 다 같다. 배도 모두 받아다가 크고 작은 걸 나누어 놓는다.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깡통 있는 데는 깡통으로 채워지고 금이 있는 데는 금으로 채워진다. 사람들도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상인들이 정치인들 하는 데에 끼일 리가 없고, 정치인이 상인들한테 끼일 리가 없다. 깡통이 금방에 갈 리가 없고 금이 깡통전에 갈 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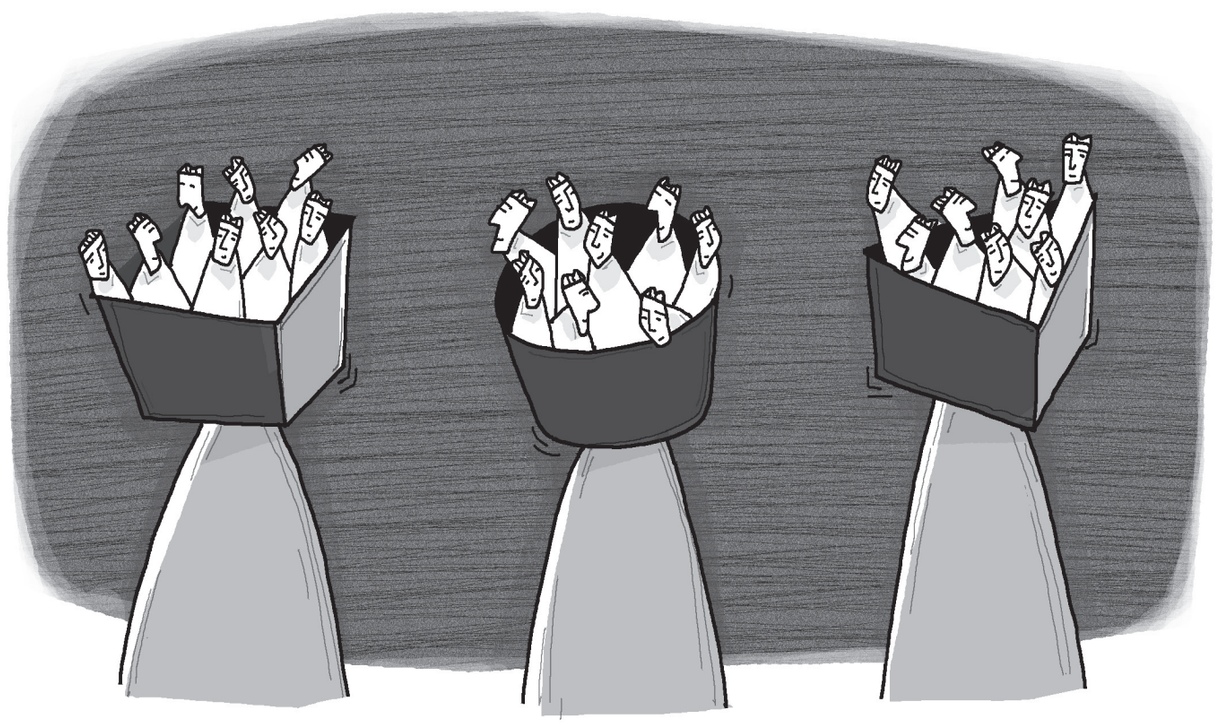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인간의 차원도 역시 그러하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한 가족이 모여서,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끼리끼리니까. 깡통이라면 깡통, 금이라면 금,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한 가족 속에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두가 각자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한다. 그건 왜? 그 상대방 탓만 아니니깐 말입니다. 왜냐? 그 깡통과 그 깡통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니까. 이쪽이 어떠한 문제가 나면 이쪽도 속이 상하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속 썩이고 살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몽땅 없애려면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고 자기의 그 녹음된 거를 지워 버리는 수밖에는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셔야 내가 또 강력히 나가죠. 허허허.

지금 의학적으로나, 다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모두 과학적으로 되는 이치와 상대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자동적인 컴퓨터와 자동적으로 움죽거리게 하는 그런 누진에 관한 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요, 누구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우주를 갖다가 요만한 면경 알로다가 다 갖다가 볼 수 있고, 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거짓말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만하게 아주 좁쌀 알갱이만 한, 좁쌀 알갱이도 없는데 표현을 하려니까 좁쌀 알갱이라고 합니다. 좁쌀 알갱이만 한 면경이 이 대뇌에 들어 있어서 누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팎, 즉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다 거기 흠뻑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두가 녹음이 돼서 스크린처럼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스크린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무르팍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움죽거리게 하듯 그것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를 하려면 한 찰나에 그냥 다, 여러분도 아마 이 공부 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모르는 겁니다. 하하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어린애가 들어서기만 하면 낙태가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낙태가 되려고 피가 흐르고 있다 한다면 그럴 때, 그 순간 들었을 때 벌써 순간 거기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너무 빠르니깐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나! 그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우연히 된 걸로도 알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된 줄 알아도 모르고 "아유."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휴, 참 부처님 원력이 이렇게 참 광대해!' 하고 좋고 정말 기쁘지만 그거를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 전력이 이 순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순간 버튼을 누를 때에 불은 반짝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이 봅니까?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력이 들어와서 불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죠? 하하하. 그런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믿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거를 까뒤집어서 가르치려니, 이걸 이해를 해야 믿겠기 때문에 이거를 까뒤집어서 일러 드리려니…. 지금 현대 사람들이 때로는 이걸 물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몸도 물질이지만 그것도 뼈를 다른 걸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무릎도 끼고 발목도 끼고, 팔꿈치도 끼고 그렇게들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끼고 또 빼고, 또 끼고 빼고 이러다 보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체 내에서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굴리세요. 마음, 이 마음으로써 모든 게 절대적으로 응용이 되니깐요. 이 몸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용도에 따라서 바깥에서 오는 거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모든 문제들, 모든 게 이게 절대적으로 응용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여기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내 꼴이 이게 뭐라고 (장삼 자락을 잡아 보이시고) 이걸 보고 절을 하겠습니까? 생각들 해 보시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이거를 보지 않고 자기가 위급하니깐 그냥 땅바닥이고 어디고 아랑곳없이 그냥 절을 한 게 나한테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패처럼 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부처님한테 한 거죠. 이게 부처 뒤에 숨어 있는 그 부처님 거기에까지 통신이 되게끔 했단 얘깁니다.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